

# 구)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명칭 선호도 조사

### 6일까지 목포시홈페이지서...최종 선정작 상금 1백만원

### 목포 미식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해 오는 4월 개관 예정

목포시가 구)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명칭 선정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7일 동안 목포의 맛과 관광, 역사, 문화 등의 콘텐츠를 담아 새롭게 재탄생할 구)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부각할 명칭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70건의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시는 1차 선별(중복, 설명 미기재 등)을 거쳐 256건에 대해 시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구)목포세관창고가 목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장소인 만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제안부터 선정까지,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선호도 조사는 목포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참여/민원→시민참여→사이버 설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선호하는 명칭 5건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시는 시민 투표를 거친 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시상금 1백만원을 시상한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 스톱푸드존 운영자도 발표해 복합문화공간의 4월 개관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 함평군, 해빙기 산림보호 분야 안전점검 추진한다

### 산림재해 취약지역 149개소 대상

함평군이 산림분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를 '해빙기 산림보호분야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등 산림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66곳을 비롯해 사방시설 51곳, 임도시설 32개 노선(86.59km) 등 149개소이다.

군은 산림재해 취약지에 대한 현지 점검·정비는 물론 재난 대응인력 정비, 거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등 산림 재해 발생에 대비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안 가란도,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새단장

### 전통 돌담과 기반시설 정비로 방문객 발길 이어져

신안군은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가란도 안길정비사업" 준공식을 지난 2월 28일 개최하였다.

압해읍의 부속섬인 가란도는 해상보행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난초와 해안선을 따라 자연의 풍광과 낚지, 바지락, 송어 등 풍부한 해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나, 강한 해풍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슬레이트 지붕, 붕괴된 마을담장, 폐·공가 등이 즐비해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었다.

신안군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기반시설 확충,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

하고자, 지난 2019년 국가균형위와 농림부에서 공동주관하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21억원이 선정되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안의 시멘트 담장을 전통 돌담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노후건축물 철거, 재래식 화장실교체, 배수로정비, 아스콘덧씌우기 등 취약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안군은 "선착장에서 마을입구 750m 구간엔 전통돌담과 어울리는 가로수길 조성하고 건축물 색채정비사업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

### 경계 협의·소유자 간 분쟁 사전 예방 위해 3개월 운영

영광군은 영광읍 지적재조사지구(13,011필지, 6,063,8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하고자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간) 영광읍사무소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을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이용현황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측량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지축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지구 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직접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축산분과 심의회 개최

영암군은 지난 25일 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축산분과)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회는 올 한해 추진할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안에 대해 이명종 축협장을 비롯한 축산분과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해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축산지원사업은 축산정책분야 9개 사업, 축산육성분야 12개 사업, 동물방역분야 10개 사업, 축산위생분야 9개사업 총 4개 분야에



40개 사업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시

### 공공근로 70명·지역방역 21명 총 105명

무안군은 2일부터 올해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선발된 근로자 70명이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인원 수는 총 105명이다.

이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은 공공기관 지원업무, 꽃길 가꾸기,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39개 사업에 투입됐다.

사업 시작에 앞서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들을 선발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4명과 지역방역 일자리 참여자 21명을 업무에 우선 투입했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예방과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